

스마트폰 ‘脫 중국’… 삼성도 애플도 인구대국 인도로 출격

인도인구 14억2577만명 中 추월 보급률 60% 못미쳐 잠재고객 많아

삼성전자, 인도시장 2분기째 1위 스마트폰 판매량 전년비 247% ↑

애플, 뭄바이·뉴델리에 매장 오픈 폭스콘 위탁 아이팟도 생산하기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격전지가 ‘인도’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탈(脫) 중국 분위기 속에 인도 시장은 ‘인구 대국’의 면모도 보이며 스마트폰 판매지로서의 매력도 높아지는 중이다.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인구’가 가지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유엔 경제사회처(DESА)는 지난달 24일 인도 인구가 4월 말 14억2577만5850명이 되면서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인구 1위’ 국가를 인도에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0%에 미치지 못해 향후 스마트폰을 살 잠재 고객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매장 직원이 제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1억5200만대로 중국의 2억8600만 대보다는 적지만 향후 늘어나리라 예측했다.

인도의 경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의 인구 1%만 스마트폰을 산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인도 고객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

려는 비중이 늘고 있어 제조사들의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짚어보면 6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은 11%로 4%에 불과했던 작년보다 3배가량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2분기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는 점유율 23%를 기록한 샤오미가 1위를 점유했지만, 삼성전

자가 인도 시장 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며 중저가 시장과 플래그십 시장의 판매를 개선을 이끌며 인도 시장 내 판매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247% 급증했다.

중저가시장에서는 갤럭시A 5G 시리즈가 출하량의 50%를 차지하며 효과 노릇을 하고 있고, 갤럭시 S23 시리즈의 글로벌 성공은 인도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됐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인도 공세는 최근 급격히 거세졌다. 지난달 인도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에 애플스토어 1·2호점을 개장한 데 이어 아이팟도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아이팟은 애플의 협력사 중 하나인 세계 최대 전자 기기 위탁생산 서비스 업체 ‘대만 훙하이 정밀 공업(폭스콘)’ 맡는다. 또한 폭스콘은 인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도에 약 7억 달러를 들여 아이폰 부품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이 같은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인도가 ‘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지역별 매출만 봐도 ‘애플 텃밭’으로 불리는 중국, 일본, 북미, 남미, 유럽 등에서 부분의 지역에서 매출이 하락한 반면, 인도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대국’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이 2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약 6%로 추정돼 인도 고객들에게 애플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도 인도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마케팅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도 노이다 지역에 약 8000억원을 들여 2018년 7월 스마트폰 신공장을 완공했으며, 갤럭시 S23 시리즈부터는 인도 공급 물량을 해당 공장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향후 나올 신제품인 갤럭시Z(폴드5·플립5) 시리즈도 인도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소비 살아났지만 기저효과 탓… 기대 못미쳐

● 차이나 뉴스&리포트

소매판매 18% 증가 2년여 만에 최대 16세~24세 실업률 20% ‘사상최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본격화되면서 소매판매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경기 회복을 자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보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이어갔고, 지난 2021년 3월(34.2%) 이후 가장 크다.

외식 등 식당 소비가 43.8%나 급증

했고, 상품 소매도 15.9% 늘었다. 자동차 판매는 16.5% 증가했다.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4월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소비가 얼어붙었던 만큼 시장에선 소매판매 증가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저효과 때문에 보이는 성장률은 높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달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약하다”며 “향후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도 개선세가 다소 미진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로 집계됐다. 전달(3.9%)에 이어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시장 예상치(9.8%)는 크게 밑돌았다. 자동차 제조업의 증가율이 44.6%로 전체 지수를 끌어 올렸고, 장비제조업과 화학업종이 각각 13.5%, 7.5%로 호조를 보였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긍정적 요인이 누적됐다”면서도 “국제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가혹하며, 국내 수요는 부족해 경제 회복을 위한 내생적 동력이 아직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더 높아졌다. 도시 실업률은 5.2%로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지만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는 7~8월에는 대졸자 1158명도 취업 시장에 뛰어들다.

/안상미 기자 smahn1@



尹,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함암·대사질환 후속신약 상용화 계획

>> 1면 ‘LG화학, 전지소재’서 계속

중국, 북미, 호주, 한국에서 화유코발트, 피드몬트 리튬, 캄코 등 주요 기업들과 전구체 JV 공장 설립, 리튬 구매계약,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분리막 등 부가 전지 소재 사업 확대로 성장 지속을 꾀한다. 미국 IRA 법안에서 분리막이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되어 사업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 신약 개발 공들여

LG화학은 재활용(Recycle), 생분해·바이오(Bio), 재생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해 업계 저탄소 비즈니스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매출도 2022년 1.9조에서 2030년 8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2028년 1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공략을 위해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물질 변화와 재활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시장성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화학은 FDA 승인 신약 5개를 보유한 매출 2조 규모의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함암·대사질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후속 신약을 지속 상용화할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완성하고, 전지 소재·친환경 소재·혁신 신약이라는 3대 핵심사업을 보유한 글로벌 과학기업으로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1면 ‘메트로경제 사회’서 계속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 ② 경력 취재기자(정규직)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취재역량평가
 - ▲ 3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응시자격
- ④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3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⑤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2. 경력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

종 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주요 모집부문: 산업, 금융, 증권, 정책
(상기 모집 부문외에도 메트로와 함께 미래를 개척할 진취적인 분은 지원가능)
- ④ 응시자격
- ⑤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
- ⑥ 동종업계 기자경력 2년 ~ 7년
- ⑦ 성별 및 나이 무관
(공통사항)
-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우대(신입기자만 적용)
- 제출서류
-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본지 홈페이지, 구인 사이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경력기자 지원자는 기명 기사를 첨부

(1개~2개)

- ③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23년 4월 26일(수) ~ 2023년 5월 21일(일)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21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① 신입기자 : 5월 25일(목)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② 경력기자 :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전화 02-721-9851)